“공공 공사 조기 발주 통해 ‘고사 위기’ 지방 경제 살려야”

대한건설협 전남도회, 업계 현안 지속 건의

전남 SOC 예산 집행 시 지역경제 ‘단비’

장기계속공사 추가비 법제화 등 개선 요청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지방 경제가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과 더불어 공공 공사 조기 발주 등 대규모 예산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도회는 올해 국회 국토위 등 관련 소위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공공공사 조기 발주 집행, 추경 조기편성 등 시급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건설투자 위축에 따른 내수 회복 부진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지방 중소업체의 경우 공공 공사 의존도가 높아 새 정부의 공사 조기 발주 소식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지난해(26조4천억원)보다 3.8%(1조원) 감액된 25조 4천억원으로 책정돼 건설업계의 경영상 애로점이 많다.

이에 도회는 출범 한 달을 맞은 새 정부가 30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에 대한 상반기 조기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 전남도 SOC 관련 예산은 1천460억원 규모로 적절한 예산 집행 시 침체된 지역 경제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개로 도회는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에 대한 법제화를 요청하고 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예산 부족, 토지보상 지연 민원 발생 등 시공사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총공사기간 지연이 일상화돼 있다는 게 도회의 주장이다.

현재 국가 지방계약법에서는 공사기간 연장 시 그 추가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발주기관은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는 총공사기간 연장 시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규정의 미비로 인해 발생, 기업의 극심한 경영 애로를 야기한다.

이에 도회는 공공계약 불공정 해소를 위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처벌보다는 예방을 중심으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도회의 설명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에 강력 처벌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된 지 3년이 경과됐다.

도회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매우 포괄적임을 지적한다. ‘관리상의 조치’, ‘안전 보건관계법령’, ‘실질적 지배’ 등 문구가 불명확하고 내용이 포괄적 추상적으로 의무범위 예측 곤란하다는 게 도회의 설명이다.

또 건설사고는 대부분 과실에 의해 발생함에도 ‘1년이상 징역’의 하한형 형벌을 부과, 타 법령과 비교시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로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법제명 개정, 경영책임자 등 명확화,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완화, 기업규모별 의무 차등화, 의무이행시 면책규정 신설 등 처벌 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공공 공사 조기 발주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새 정부가 대규모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지방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한전KDN, 청렴 씨앗 뿌렸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캠페인 전개

한전KDN은 최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본사에서 ‘청렴 Week 캠페인’을 시행했다. 〈한전KDN 제공〉

한전KDN은 3일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에서 ‘청렴 OK! KDN!’의 구호를 건 청렴 Week 캠페인을 시행하고 마지막 날 청렴을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청렴목(木) 식수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Live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전KDN의 청렴 Week 캠페인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으며 경영진과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 시작은 출근하는 임직원들에게 사과 등 간식을 나눠주며 시작을 알리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교육 ▲윤리경영담당자 워크숍 ▲청렴목 식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Live 등 교육을 진행하고 본사 1층 로비에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청렴 북콘서트 ▲청렴 골든벨 ▲청렴 다짐잇기 ▲청렴 네컷 촬영 ▲청렴 마스코트 선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캠페인의 절정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함께 진행한 청렴목(木) 식수로 ‘약 100일간 꽃이 피는 지속성과 매년 껍질을 벗어내 매끈하고 깨끗한 수피’를 지니는 특성을 가진 흰배롱나무처럼 겉과 속이 같은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렴의 씨앗이 조직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목포상의 ‘미래내일 일경험’ 직무교육 개강

26개 기업 참여…8주간 인턴 기회 제공

목포상공회의소(이하 목포상의)는 3일 “지난 2일 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사전직무교육 과정’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는 목포상의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직무탐색과 역량 강화를 통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과정에는 50여명이 모집돼 4일까지 3일간 20시간의 사전직무교육과 멘토링이 이뤄진다. 오는 7일부터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기업에서 8주간 인턴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참여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MC에너지㈜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재)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등 총 22곳이다.

정현택 목포상의 회장은 “심층 직무교육과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은행, 보이스피싱 사전차단 상반기 23억 규모 피해 막았다

적극 대응 공로 광주경찰청 감사장 수여

전문 인력 채용 실시간 모니터링 등 구축

광주은행이 2025년 상반기 기준 총 23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26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피싱범죄 예방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광주경찰청-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작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대응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해 운영 중이다.

해당 인력은 지속적인 사례 기반 교육과 시스템 고도화를 바탕으로 의심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 징후 발생 시 즉시 영업점과 공조해 고객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112 신고까지 대행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부 소속 보이스피싱 대응 전담직원은 고액 인출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을 설득해 경찰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반기에만 약 4억6천만원의 대면 편취 피해를 막았으며 고객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한편 광주은행은 영업점 직원들도 보이스피싱 예방의 일선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직원들은 고객 응대는 물론,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치며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실제 피해를 차단한 임직원에게는 내부 포상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동기도 부여하고 있다.

김은호 광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광주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성과는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과 더불어 모니터링 전담 인력 및 일선 영업점 직원,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가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사회 금융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
실외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하나!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 물 섭취
둘! 작업장소 그늘 마련,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셋! 무더위 시간(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광경과 건강한 먹거리가 풍부한
고흥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고흥군 Goheung-gun 광고문의 : 062)650-2099